

김남두 선생님에 대한 개인적 기억들 몇 개..

이봉재
(서울과학기술대 기초교육학부)

언제부터였는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대학원의 그 어느 날부터 나는 김남두 선생님과 철학책을 읽어왔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비코, 푸코, 도킨스 등 사상사를 자유롭게 오갔던 것 같다. 그러나 책읽기보다 더 기억남는 것은 이야기였다. 선생의 책읽는 그룹에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이야기부터, 세상사에 대해서, 대학과 학생 그리고 가정의 소소한 일상까지 생각나는대로 기탄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다. 책을 읽고난 늦은 저녁이면 낙성대를 함께 걸어내려오기도 했고, 화창한 오후에는 관악산을 넘기도 했다. 걸으나 넘으나 우리의 즐거움은 오직 토론이었다. 이야기가 하도 많고 끊기지 않으니 선생을 만난 날이면 조금 피곤했지만, 그 이야기만큼 재미있는 철학은 내게 없었다. 이제 선생께서 퇴임하신다니, 가장 오래동안 함께 이야기하고 책을 읽었던 제자 중 한사람으로서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생의 모습 몇가지를 기록해 두련다. 기억이니 정확할 자신은 없고, 그저 윤곽 정도가 분명한 스케치같은 것이다.

1.

어느 날 선생께 물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책에 관심있느냐고? 그리고 항상 플라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생께 플라톤은 뭐고, 파르메니데스는 뭐냐고? 그런 문답의 어느 단락에 이르면 선생은 언제나 “선생의 선생”이신 박흥규 선생님을 말씀하셨다. 박흥규 선생을 따라 형이상학에 관심있다고, 특히 플라톤의 어휘로 하는 형이상

학에 관심있다고, 그리고 그 관심의 뿌리는 박홍규 선생님과 비슷하게 “서양적인 것”을 이해하려는 것이라고 하셨다. 박홍규 선생께서는 일본 식민지 시절 일본에 유학했으며, 당시 일본지성계의 관심을 따라 서양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고, 지금은 식민지 시절도 아니고 서양적인 것에 대한 경외감도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서양적인 것은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던 것 같다.

한국에서 서양철학자들의 글을 읽는 사람으로서 누가 “서양적인 것”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자유로울까? 그들이 왜 그런 말들을 하는가,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못했을까, 지금 우리가 그런 말들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등등. 그런 생각들의 끝에서는 결국 서양적인 것을 파헤쳐야 한다고 압박받지 않을 수 없으니 말이다.

선생에 따르면 박홍규 선생께서는 서양적인 것의 핵심을 실증주의적 사유에 있다고 파악했다. 일리있다. 서양적인 것의 핵심에서 실증과학을 배제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선생은 어느 때부터가 실정성(實定性)이라는 용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고대희랍의 사유 속에서 실증성의 개념을 재해석하려는 것이었다. 지금 그 연구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생께서는 퇴임 후의 자유로운 시간을 연구에 집중하실테고 그러니 우리는 그 결과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

2.

선생께서는 텍스트의 문장들을 놓고 따져묻는 걸 좋아했다. 우리와의 세미나에서도 그랬고 대학원 수업, 학부수업에서도 그랬던 것 같다. 내가 물었다. 왜 온통 텍스트 읽기냐?

선생께서 처음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의 답안지를 보시고 놀라셨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은 지식을 정연히 요약하는 능력에는 모자람이 전혀 없음을 알았다고 했다. 대신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재미있

게 말하는 능력 내지는 경험은 없어보였다고, 그게 우리학생들에게 부족한 능력 아니냐고, 학생들이 주눅들지 않고 자기 의견을 만들어가도록 훈련시키고 싶었다고 하셨다.

선생과의 대화에서는 어떤 사소한 의견에 대해서도 답변을 기대할 수 있었다. 세미나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현대영미철학의 정연함에 길들여진 내게는 조금은 산만하기도 했던 그 시간, 그 사소함과 소란 속에는 선생이 원하는 어떤 가르침이 배어 있었던 건데, 나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받아냈던 걸까?

3.

선생께서는 교육행정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뭘 하시는지 따져보면 언제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셨다. “학생들 책읽히기”였다. 선생께서는 인문교육이란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항상 말하셨다.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묻고, 자기체험을 이야기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위에서 재미있는 책들을 읽고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대학에서는 비판적으로 따져묻고 자신의 관점을 만들어가고.. 이런 연속적인 이야기의 체험 속에서만 고급지식과 지식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선생의 소신이었던 것 같다. 이야기를 통해 체험이 정련되고 그것이 결국 자생적이며 독창적인 지식의 토양이 된다는 생각일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러나 내게는 항상 고전읽기가 대학 인문교육의 모든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다. 선생에 따르면 그것도 결국 플라톤과 같이 가는 것이었다. 어릴 적에는 이야기를 듣고 성숙하면 수리교육을 통해 논리를 배우고, 최종적으로 철학을 통해 비판적 독해를 배운다는 플라톤의 교육론의 변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보니 선생의 교육론은 플라톤이 그러하듯 엘리트를 위한 교육론이었다. 책읽기를 통해 지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그로써 비판적

독해와 이론창조에 이를 수 있는 지적 엘리트들에 대한 교육론이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대학에 재직하셨던 선생의 행운이다. 플라톤의 방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는 플라톤학자에게 엘리트학생들을 모아놓은 서울대학교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었을까?

그러니 선생의 교육론은 철학책은 끔찍이 어려워하는, 책읽기가 익숙하기 보다는 낯선 공대생들이 대다수인 나의 대학에서는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선생의 교육론이 일리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왜 그것만이냐고 항상 동의를 유보했던 것은 결국 내가 다른 종류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내가 고전텍스트의 가치를 의심하는 건 아니다. 선생에게 배운 나는, 여전히 책을 선뜻 좋아하지 않는 나의 학생들에게, 남의 생각을 거쳐서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깊은 독서”의 재미에 대해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

4.

선생께서는 자신을 플라톤 학자라고 분명히 하신다. 그러나 선생의 플라톤은 흔히 플라토니즘이라고 불리는 형이상학적 관념론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 플라톤 텍스트 안에 너무나 다양한 생각들이 들어있다는 것이 선생이 드는 이유지만, 내가 보기에는 관념론적이지 않은 “날 것”들로부터 시선을 떼지 못하는 선생의 또다른 면모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선생께서는 관념 아닌 것들, 말로는 정확히 포착할 수 없는 감각이나 디테일에 대한 예민함이 있다. 함께 보았던 산과 나무, 풍경에 대해서 언제나 특별한 감흥을 말씀하셨으며, 글에서 논리뿐 아니라 어떤 품격 같은 것도 쉽게 간취해내시곤 했다. 어떤 좋은 글을 만나고는 창을 바라보며 한참을 조용히 서계시던 장면이 떠오른다. 아무런 말도 없었던 장면이지만 나는 그로부터 좋은 글에 대한 경탄과 더불어 학자다운 시샘조차 조금은 어림짐작할 수 있었다.

선생은 자신의 “날 것”에 대한 예민함을 학부시절 현상학 강의의 영향 같다고 말하신다. 그러나 내 경험상 서울대 철학과의 현상학강의가 학생들로 하여금 현상과 느낌 자체로 돌진하도록 자극했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 그것은 선생의 또다른 성향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형이상학이라는 추상적 종합으로는 절대 만족될 수 없는 선생의 또다른 부분일 것 같다. 그럼에도 형이상학은 선생의 우선적인 본능인데, 그것은 틈만 나면 이들 디테일 또한 개념의 그물 속에 집어넣으려 애쓰시기 때문이다.

선생께서는 몇 년 전부터 전통가옥의 “마당”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다. 마당은 그 배후의 산까지 포함하는 공간이라고, 그런 것이 제대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다고, “터”의 개념을 천착해보면 그것이 드러날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선생은 노래나 춤도 무척 좋아하신다. 둘다 아주 못하는 수준같지만 그 애호의 강렬함은 놀랄 정도다. 좀더 나아가 들면 노래와 발칸 댄스를 배우고 싶다고도 하신다. 부디 무릎 건강하셔서 춤과 노래를 만끽하시길 바란다.

5.

선생께서는 항상 낙관적이었다. 우리들이 정권을 비난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 우울해해도, 선생은 모든 게 나아진다, 잘될 거라고 항상 말하셨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은 굉장한 낙관주의자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천성적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15세에 부모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 이후 몇 년간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신다. 학위를 하고 늦지 않게 서울대학교에 부임하셨다고 했다. 자녀들도 큰 탈없이 잘 자란 것으로 안다. 그리고 보면 좋은 삶이셨다. 스스로 걱정애 시달리는 성격이 아니시고, 좋은 직업과 건실한 자녀들이 있으셨으니 흔치 않은 행운을 누리신 것 같다.

힘이 좋은 분이다. 쉽게 사그러질 것 같지 않은 힘이 있으시다. 계

속 생각해보실 여러 주제를 갖고 계신 듯하다. 학자에게 퇴임이라는 매듭은 여러 가지 의미일 수 있다. 강의의 즐거움을 잃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 제자들과의 부대낌이라는 값진 경험도 놓아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오직 스스로를 위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이기도 하다. 황동규 시인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었다고 말하는 인터뷰를 읽은 적 있다. 선생께도 퇴임이 자유의 그 의미이시기를 바란다. 선생의 삶에 넉넉했던 행운이 언제까지나 계속 되기를 기원드린다.